은재야 죽을 때까지 너만을 사랑할게 임신입니다. 예 어머니 저예요. 너 거기 지금 어디야? 금방 들어온다 하더니 어디를 그렇게 쏘다녀. 춤바람이라도 난 거야 뭐야? 죄송합니다 어머님. 비누공예 수업이 있어서요. 슈퍼에 널린 게 비누인데 누가 그딴 거 만들랬어? 아무튼 지질이 궁상 떠는 건 알아줘야 된다니까 그렇게 가난뱅이 때국물이 안 벗겨지니? 늦어도 2 시까지는 들어갈게요 어머님. 뭐 시키실 일 있으세요? 갑자기 돈 쓸 데가 있으니까 올 때 돈 좀 찾아와. 왜 대답이 없어. 네 시아버지가 나 몰래 용돈 찔러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? 통장 확인해 볼 거니까 통장에 있는 돈 죄다 찾아와. (안 들어오고 뭐 해) 아유 알았어 금방 들어갈 테니까 패 돌려. 나 바쁘니까 그만 끊자. 당신이에요? 나예요 지금 어디예요. 당신이야말로 지금 어디야 집에 전화했더니 아침 일찍 나갔다던데 뭐가 그렇게 바빠. 오늘 비누 공예 배우는 날이잖아요. 배울 게 있으면 결혼하기 재깍재깍 배우고 들어올 일이지 누구 등골을 빼먹으려고 허구한 날 돈을 써. 내가 당신 부모라도 돼? 응? 무슨 화나는 있어요. 왜 이렇게 잔뜩 올라 있어요. 그러면 안 오르게 생겼어? 도대체 이 여자들이라는 게 하나같이 남자 등쳐먹으려고 아니야 됐다 됐어. 나 지금 병원으로 움직이는 길이에요 오늘 약속 안 잊었죠. 약속은 뭔 놈의 약속. 나 지금 현장 나와 있어. 네? 지금 병원 오는 길 아니에요? 글쎄 내가 왜 병원을 가. 가뜩이나 힘이 뻗쳐서 탈인데. 내가 거기 끌려가서 무슨 검사를 받으라는 거야. 여보 제발 한 번만 내 부탁 좀 들어줘요. 시험관이라도 하려면 당신도 같이 검사받아야 된대요. 청담 사거리에 있는 병원인데 기다릴 테니까 제발 와줘요. 청담동? 당신 분당 병원 아니었어? 병원 옮겼다고 했잖아요. 청담사거리에 있는 소망 산부인과에요. 아가씨. 네 여기 병원 이름이 뭐예요. 소망 산부인과인데요? 소망 산부인과? 이게 누구를 잡아먹으려고 말이야 어? 한치 콘도 널린 게 병원인데 왜 하필 여기를 기어들어온 거야. 밖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. 아 네. 야 일로와 빨리나와. 아 왜? 아 뭐해 빨리나와 왜그러는데 아니 왜? 오빠? 너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. 나 지금 현장에 일 터져서 가봐야 돼 곤도라가 막 떨어지고 다치고 어 이거 이거 난리가 났대. 오빠 그럼 내 수술은? 어차피 수술은 네가 하는 거잖아. 의사한테 감기약을 술 깨는 약인 줄 알고 들이마셨다고 그러고 알아들어? 오빠 내가 부담스러워? 오빠 이러면 나 혼자서 애낳고 이 애 키운다? 얘 왜 이러니. 야 사랑하는 사람끼리 족쇄가 생기면 그날부터 날 새는 거야. 이걸로 병원비하고 미꾸라지건, 소꼬리건 몸에 좋은 거 다 해 먹어 몰라. (정은영씨 보호자 되시죠?) (선생님이 기다리시던데.) 정은영님 지금 수술실로 들어가 보시면 돼요. 그런데 보호자분은요?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닌데 꼭 보호자가 있어야돼요? 어머 구은재 씨 오셨어요? 예 안녕하세요. 세상 참 불공평해요.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한테는 아기가 안 생기고 원하지도 않는 사람한테는 생겨가지고 곤란하게 하고 저한테도 언젠가는 좋은 일 있겠죠 뭐. 다시 날을 잡아드릴 테니까 다음에 꼭 남편분이랑 같이 오세요.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한 볼일이 생겼나 봐요. 검사 결과로는 별 이상이 없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고요. 7 년 전에 임신한 적이 있다니까 더 희망적이고요. 네 선생님.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신다고 했죠. 환경도 바꿔볼 겸 한번 분가도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지.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피하는 게 좋으니까요. 아싸~ 쪽이다 쪽 아침부터 더럽게 안풀리더만 이제야 몸이 풀리네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이렇게 되면은 청단 났구요. 무조건 스톱 스톱스톱. 아~ 아니 뭐 해 계산 안 해? 숙이 너는 광박 너는 피박. 아 뭐 해 빨리 꺼내 돈. 아유 아유 정말 이게 뭐야 정말. 첫끝발이 개끝발이라고 하더니만 정말. 야 오늘 모처럼 딴 돈 죄다 푸는 거 아니야 정말. 그러니까 나는 뭐냐고. 아유 화투도 체력전이라니까. 아니 그런데 이게 뭐야. 하루 종일 손바닥 발바닥 때기쳐서 꼴랑 요거 딴 거야? 아이고 참. 부럽다. 나가서 국수라도 좀 삶아 와. 논산댁은 어디 갔어. 장 보러 갔는데 여태 안 오네. 며느리는 왜 오늘 코빼기도 안 보여? 친정 갔어? 지 주제에 친정은 무슨. 배운 게 하나도 없어 쪽팔린지 뭐 배우러 갔대. 아유 며느리 촌티 벗기다가 집안 말아먹겠어. 어머니 다녀왔습니다. 왔나보다 2 시에 들어온다더니 잘하면 해넘어가겠다. 어떻게 시어머니 밥 차려줄 생각도 안 하고 이제서 기어 들어와? 어머니 아직 점심 못 드신 거예요. 논산댁 아주머니 안 계세요? 네 시어머니의 밥을 왜 논산댁한테 떠맡겨. 네가 논산댁 월급 주니? 너 팔자 늘어지라고 논산댁 쓰는 줄 알아? 어머니 죄송합니다. 얼른 식사 준비해서 올릴게요. 손 놀 시간 없으니까 초밥이나 만들어내 와. 한창 끝발 붙었을 때 밀어붙여야 될 거 아니야. 아 참 돈은 찾아왔니? 여기요 꼴랑 이게 다야? 또 죄다 친정에다 퍼다 날랐구먼 도대체 무슨 애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니. 집안이 좋니 애를 잘 낳니. 내가 화병 안 걸리고 사는 게 용타 용해. 2 시에 들어온다더니 잘하면 해넘어가겠다. 어떻게 시어머니 밥 차려줄 생각도 안 하고 이제서 기어 들어와? 어머니 아직 점심 못 드신 거예요. 논산댁 아주머니 안 계세요? 네 시어머니의 밥을 왜 논산댁한테 떠맡겨. 네가 논산댁 월급 주니? 너 팔자 늘어지라고 논산댁 쓰는 줄 알아? 어머니 죄송합니다. 얼른 식사 준비해서 올릴게요. 손 놀 시간 없으니까 초밥이나 만들어내 와. 한창 끝발 붙었을 때 밀어붙여야 될 거 아니야. 아 참 돈은 찾아왔니? 여기요 꼴랑 이게 다야? 또 죄다 친정에다 퍼다 날랐구먼 도대체 무슨 애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니. 집안이 좋니 애를 잘 낳니. 내가 화병 안 걸리고 사는 게 용타 용해.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. 억지 부리지 말고 얼른 내 돈 내놔. 아까 화투장 뒤집다가 내 패 슬쩍 봤잖아. 어? 사람 그렇게 안 봤더니 완전 사기꾼 아니야 이거? 뭐야? 사기꾼? 지금 말 다 했어? (이래봬도 내가 이 분야에서는 국제 심판도 볼 수 있는 사람이야! 아이고 왜 이래. 똥개도 가서 텃밭에서는...) 나다. 문열어 예 알겠습니다. 이거 무효야 무효! 뭐 이런 화상이 다 있어? 이게 돈에 환장을 했나. 어머니 어머니. 아버님오셨어요 아버님. 아버님이고 뭐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살아난다고 해도... 나 부르지마! 어머님! 너 지금 뭐라그랬니? 아버님? 아버님이라고 그랬니? 오빠 벌써 들어오는 거야? 어 그래 어디 다녀오는 거야? 시장에 떡 싸먹으러. 떡 먹고 싶으면 논산댁 더러 사오라고 그러지. 그러고 팔짝거리고 뛰어다니다가 차에 치면 어쩌려고. 나 차조심 백번 잘해. 찻길에서는 손 들고 길 건너 하늘이 되게 착하지~ 에이 고모가 언제 차 조심했대요. 차만 오면 그냥 회장님 차라고 막 따라댕겨 놓고 내가 고모랑 댕기다가 먼저 심장마비 걸려 죽겠네유. 논산댁 하늘이 잘 지켜요. 어디를 가나 한눈 팔지 마시고. 네 회장님 걱정 마세요. 아버님 들어오셨어요.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.. 아 두통이 일찍 나서 들어왔어. 근데 네 어머니는? 방에 친구분들 오셔서 난 나이 들수록 신윤복 그림이 마음에 들더라고 몽유도원도도 훌륭하지만 그 신윤복 그림에서 뭐랄까. 인생의 희로애락이 느껴져요. 안 그래요? 느껴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. 회장님. 아. 예 당신이 시간에 웬일이세요. 어디 몸이라도 안 좋으세요? 아니 뭐 피곤해서 일찍 들어왔어. 오늘 그림 모임 있다고 얘기했죠. 안 했나 음 나 대표 안 줄 거야. 그거

받으려고 옆에 앉아 있었는데. 너 오늘 많이 땄으니까 얼른 좀 돌려줘. 나 그거. 우리 아들 해물값 이란말야 줄께 줄께 은재. 너 왜 이렇게 눈치가 발바닥이니. 그 지경에 문을 열어주면 어쩌자는 거야. 시어머니 이혼당하는 꼴 보고 싶니? 하지만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셔서...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시간을 벌었어야지. 벨소리가 고장 나서 못 들었다든지, 집안에 소목약을 친다든지 눈치 18 단인 저 양반이 화투 냄새 모르겠어? 아주 그냥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. 아이고 은재는 착한 거여 맹한거여? 요즘 세상에는 곰탱이 며느리 하나도 안 반가워. 오늘 저녁 뭐 할까요. 시원하게 북엇국이라도 끓일까요? 저녁 밥은 은재 담당이잖여. 하루 종일 고모 따라다니느라 힘빠져 죽겄어. 나가서 밭대기를 갈고 말지. 나 눈 좀 붙이고 올게 아이고 (아오... 허리야 허리야) 아이고 허리야. 어머니 괜찮으세요? 아니 누가 거실에다가 비눗물을 엎었어. 아 도대체 누구야. 내가 그랬는데요. 조카가 비누 만들어서 거품놀이하다가 내가 그딴 거 만들지 말랬지. 아주 누구 허리를 끊어놓으려고 작정을 했니? 아유 허리야, 아유 허리야. 그러니까 언니도 똥배 좀 빼요. 그 똥배 때문에 넘어져도 못 일어나죠. 뭐예요? 아유 내가 고모하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. 내 입만 아프지. 아. 거실물 안닦고 뭐 하고 있어! 아주 시어머니를 비눗물에 빠져 죽일 셈이냐? 예 어머니 바로 치울게요. 칠푼이 며느리에 반푼이 시누이 아주 내가 진짜 내 명에 못 산다 못 살아. 엄마! 아유 허리야. 고모!!! 바라보는 눈빛~ 젖~어 있구나~ 너도 나도 모르게 흘러간~ 세월아~ 어디서 무엇을 하며~ 어떻게 살았는지~ 어때 은재 엄마 이게 새로 장만하는 옷인데 폼 죽이지? 반짝이 옷이 다 거기서 거기지. 도대체 뭘 그렇게 사들여요. 밤에 광화문 내 거리에서 뭐 신호등이라도 할거예요? 이게 다 같은 반짝이가 아니라니까. 이건 최고급 스페인 걸로 만들어서 무대에서 조명 받으면 아줌마들 죄다 쓰러지고 오줌 싸고 난리나 도대체 그 비닐 옷은 대체 얼마나 주고 산 거예요? 이번 달 월급 다 털어먹은 거 아니에요? 허허 하늘 같은 서방님이 출근하시는데. 아녀자가 왜 이리 앙탈이야? 예술가가 예술을 해야지. 돈 생각하면 예술이 되겠어? 팔리지도 않는 고속도로 테이프 만든다고 그 큰돈 해먹었으면 이제 제발 그만 좀 해요. 은재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? 내가 은재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. 부잣집에 시집 가서 알콩달콩 잘살고 있으면 되지. 은재가 그 돈 갚아내느라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는 줄 알아요? 가뜩이나 힘든 애한테 왜 당신까지 짐 되고 그러냐고요. 사돈 집에는 돈이 넘쳐나서 돈으로 딱지 접게 생겼다는데 내가 그깟 몇 푼 받아 썼다고 은재가 왜 눈치를 봐? 7 년째 아기도 못 낳고 친정 집은 지지리도 가난하고. 오빠라고는 경찰서가 자기 집이니, 어떻게 눈치 안 보고 살아요. 후진 며느리 3 대 조건 다 가졌구먼. 우리 은재가 왜 후져. 얼굴 예쁘고 마음씨 착하고. 명색이 친정아버지가 가수인데 내가 히트곡은 없어도 이래봬도 밤 무대에서는 비로 통하는데. 비 알지? 레인 레인 드랍스 폴인 온마이 햇~ 아이고 쉰소리 그만하고 도시락이나 갖고 얼른 나가요. 아니 그나저나 강재 이놈 방에서 뭐 한데요? 여저지 자빠져 자나. 어 헬로 헬로! 헬로 헬로. 매이... 아이 스피크 투... 애리? 아니 아니 아니. 저기 애리 플리즈. 애리 플리즈 아니 저 코리안 걸 애리 풀리지 아니 애리 몰라? 밥통 같은 자식아. 애리 좀 바꿔달라고. 나 이런 빌어먹을 아니 애리 좀 바꿔달라는데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도 이 자식들. 이거 아니 지금 이거 한 시간째 도대체 뭐 하고 있는 짓이야. 아우 답답해 애리라니. 애리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신경 쓰지 마세요. 혹시 애리랑 연락 안 되냐. 애리 그거 외국 물 먹더니 다른 놈 생긴 거 아니야? 엄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? 아 그래. 우리 애리가 그럴 애가 아니지. 애리는 10 살 때부터 우리 강재 짝이였는데. 아무리 좋아 죽어도 떨어져서 산 지가 자그마치 5 년이야. 게다가 파리인지 어디로 공부를 하러 갔다는데 이제 내 딴놈이 눈에 들어오겠냐. 나이트클럽 매니저가 어때서. 당신이 사랑을 잘 몰라서 그런가 본데 사랑은 국경도 넘고 세월도 넘고 불륜도 넘고 그런 거야. 생각해 보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. 네 아버지 생신 때도 전화 한 통이 없고 철철이 먹을 걸 붙여도 잘 받았다는 인사 한마디 없었잖아.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. 후원자 돈으로 유학 간 건데 사는 게 얼마나 빡빡하겠어요. 그때 어떻게든 못 가게 막았어야 했는데. 이제 어쩔 거야. 지구 반대쪽 애인 뺏기고 어떻게 살 거냐고. 아니 애리가 다른 놈 생겼다고 누가 그래요. 엄마가 봤어요? 나랑 하늘이 쪼개져도 애리를 믿어요. 내가 지구를 열 바퀴 돌아서라도 애리를 데려가 내 방에 앉혀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. 앉혀놓는 데잖아. 네 커피 가져왔습니다 사장님. 응 아 저 저 저기다 갖다놔. 어때? 일은 할만해? 아직 업무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냥 쉬엄 쉬엄해. 그러다가 예쁜 얼굴 망가지면 내가 속상하지 직장생활이라는 게 말이야. 마음만 먹으면 참 편하게 갈 수 있는... 아이 사... 사장님. 여기서 어머머 사장님 소리를 지르면 너는 실업자가 되는 거고 여기서 나를 따른다면 너는 신데렐라 된다. 물론 선택은 네 몫이지. 아이 사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되죠. 아이 돼 돼 돼. 이러지 마세요 사장님. 얘 왜이러니 얘 왜이러니 예 아버지 저입니다. 예 당연히 회사죠 너 지금 책상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. 네?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. 너 내일 중요한 계약 있다면서 사무실 앉아 있으면 어떡해 발바닥 안 아프고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? 지금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. 서류 몇 개 좀 보고 가려고... 분명히 얘기하는데 한 번만 더 사무실에서 이상한 소문나면 그때 너 머리방에서 골프채 부러져. 얼른 서류 챙겨서 나가! 예 아버님 행국차예요. 두통이 좋다고 해서 한번 타봤어요. 그래 한번 마셔보자 너 거기 좀 앉아. 교빈이 요즘 외박한 적 있어? 그런 일 없어요. 무조건 덮어주는 게 내조라고 생각하지 마. 사람 만들어 데리고 살아야지. 평생 짐승한테 밟히고 살 거야? 당신 어떻게 자식한테 그렇게 말해요? 짐승이라니요. 우리 교빈이가 왜 짐승이에요. 사람 노릇 못하면 짐승이지. 두 발로 걷는다고 사람이야? 그놈 망쳐 놓은 건 다 당신이야. 그 대목에서 내가 왜 또 나와요? 내가 만만이 콩떡이에요? 사내 놈을 치마폭에 똘똘싸서 등신을 만들어놨잖아. 대가리가 없으면 성실하기라도 해야지. 이건 허구한날 쏘다니고 사고나치고 남자가 바깥으로 돌 때는 마누라 탓도 있는 거예요. 이건 뭐 학생 주임도 아니고 허구한 날 남편을 가르치려고드니... 누가 목덜미 끌고와서 강제로 결혼시켰어! 약 먹고 자살하겠다고 난리 친 놈이 누구인데. 하나밖에 없는 아들 기 좀 살려주면 안 돼요? 허구한 날 그렇게 죽일 놈, 살릴 놈 하는데. 어떤 자식이 신바람 나서 일하겠어요? 일하기 싫으면 당신 따라 화투판에 끼라고 그래 내 분명히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. 우리 집에서 화투 판 벌리면 그때는 경찰 불러 콩밥 먹이고 감방으로 이혼 서류 보낼 거야. 알아들어!? 시어미 깨지는 게 그렇게 재미있니? 대공원 돌고래쇼보다 더 재미있지? 아예 입장권을 끊어서 제대로 구경을 하든가. 애 가졌다고 해서 결혼시켰더니 결혼하자마자 애 흘려버리고. 혹시 애 가졌다는 것도 다 쇼 아니니? 아니 저 저 저 날건달 제비가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온거야...? 어머니 누가 찾아왔는데요? 너 내말 잘들어. 지금 어떤놈이 들이닥치면 무조건

나 없다고 그래. 시집 오자마자 시어미 초상 칠 생각 아니면 눈치껏 잘하란 말이야 알았지? 온다 온다. 온다 예. 조카~ 언니 어디 있어? 백미인 누님 찾아왔다는데 우리 백미인 누님 어디 계십니까. 휴대전화해도 안 받아서 직접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어머니 안 계세요. 멀리 여행 가셨어요. 왜 이래요. 집에 있는 거 다 알고 왔는데. 나이든 누님이랑 놀아줬으면 봉사료를 내야 될 거 아니야 봉사료를. 왜 이러세요 어머니 안 계시다니까요. 얼른 가세요. 그쪽이랑 할 얘기가 없어요. 내가 직접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네. 야. 너 누구야. 우리 조카 애 가졌는데 왜 밀쳐. 너는 나한테 죽어 볼래. 이건 또 뭐야 이거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고모님 위험해요 얼른 들어가서요. 누님 거기 있어요? 동생 왔다고요. 왜 이러세요. 제발 그만 돌아가시라니깐요.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성가시게 그래. 뭐야 이거 재수 없이 야 그놈 갔니? 아우 심장이야. 아니 지깟 놈이 어디라고 여기까지 찾아와. 너 행여나 시아버지한테 불면 그날로 짐 싸서 친정 가는 거다. 입단속 잘해. 네 어머니. 그런데 왜. 그러고 앉았니? 그깟 일했다고 생색내는 거냐 뭐냐? 얼른 올라가서 저녁이나 안 쳐! 집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그러나 아주 별 요상한 일만 생긴다. 아유 정말. 도대체 뭐 하다가 애가 그렇게 된 거야. 좀 조심할 일이지. 미안해요 집에 아줌마도 있고 일할 사람이 천지인데 무슨 힘든 일을 했다고 그래. 혹시 장모님이 불러서 뭐 일 시킨 거 아니야? 아니에요 내가 조심했어야 되는데. 다 내 잘못이에요. 아버지 엄마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. 너 임신했대서 결혼 승낙까지 했는데. 첫 애긴데... 아이 은재야 나 애리이야 오랜만이지? 나. 드디어 서울 간다. 11 월 3 일 저녁 5 시 도착이야. 마중 나올 거 없어.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마. 그냥 혼자 조용히 서울로 돌아온 감상를 즐기고 싶어. 애리가 온다고? 오빠 나야. 오늘 애리가 온대. 그래 오늘 저희 비행기는 잠시 후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. 좌석에 앉으셔서 좌석 벨트를 몸에 맞게 매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 은재야 그동안 행복했니? 이제 곧 네 인생에 재미난 일들이 생길 것 같은데. 기대해 엄마 나 준비 다 끝났어. 지금 바로 공항으로 가면 되지? 무슨 화장을 이렇게 진하게 했어? 입술 밉다 지워. 메이크업 전문가께서 왜 이렇게 고지식해. 한 번쯤 바꿔보면 안 돼? 오빠 마중나가는데 너무 요란한 거 아니야? 오빠 놀래켜주고 싶단 말이야. 반년 만에 오는 건데. 건우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? 엄마 몇 달씩 집 비워도 이렇게 반가워 안 했잖아. 맨날 건우 오빠랑 놀다가 오빠 없으니까 심심해서 그렇지. 건우 돌아오면 너무 귀찮게 하지 마. 동생이라면 끔찍해서 뭐든 다 해준다고 오빠한테 함부로 하던데. 엄마 싫다. 알았어. 그런데 오빠 오는데 뭐 맛있는 것 좀 안 해? 갈비찜이랑 매운탕 벌써 끓여놨어. 그랬어? 오빠 좋아하는 달걀말이는 내가 할 거니까 손대지 마 알았지?나 갔다 올게. 녀석 저렇게 좋을까. 오빠! 잘 지냈어? 오빠 더 멋있어진 것 같아. 여보세요 나 애리예요 여기 인천공항이에요